

안전에도 철학을 가져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이 중 인 근로감독관

안전은 인간존엄성에서 출발한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 한다. 인간 존엄성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기본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에 안전은 소중한 사람을 지킨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술을 가지고 작업현장에서 저마다의 받은 바 일을 하고 있으며 안전은 여기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 사람위주의 작업이다.

사업장에 가보면 기계 위주로 그리고 공정 위주로 설치된 기계를 많이 본다.

예를 들면, 작업발판 없이 철골구조의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일하는 사람들, 안전장치 없는 프레스에서 아찔하게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일하는 사람, 진흙탕 같은 통로에서 마른 곳을 찾아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사람 등. 관리자에게 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조금

만 조심하면 된다고 얼버무린다.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면 그것은 안전이 아니다. 사고는 불안정한 사람과 불안정한 상태의 기계가 만나서 일어난다. 사람은 정말 조금만 방심에도 불안전상태에 놓이는 관리가 안 되는 대상이지만, 기계나 설비는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럼 누가 양보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기계와 설비가 양보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시설을 해야 할까? 물론, 근로자 위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근로자의 작업을 돕는다는 의미로 근로자가 불편해 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작업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의견 및 작업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장치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 안전장치가 망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안전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안전장치는 근로자가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서는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도

로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잔디를 건물주변에 깔아 놓는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사람이 많이 다닌 길, 차량이 다닌 길, 물이 고였음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 등이 나타나면 그때 그 실정에 맞도록 길을 만들고 포장한다. 차량이 다닌 길은 아스팔트 길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보도블록을 물이 고여 있음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자갈과 통나무를 이용해 자연친화적으로... 때문에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표시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너무 일방적으로 억지로 짜 맞춰 도로를 만들고 잔디밭에 울타리를 치고는 통제한다. 그러나 어김없이 잔디밭에는 사람발자국... 누구를 위한 길인가?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안전은 어떤가? 시설이라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무조건 지키란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 서라는 것이다. 안전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용 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합하도록 변형하여야 한다. 이때 꼭 참고해야 할 것은 근로자의 의견이다. 근로자는 공장의 주인이며 시설의 주인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근로자가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 모든 시설을 하여야 한다.

들째 |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언젠가 모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멕시코 현장에서 있었다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멕시코에 파견되

어 수주활동을 벌이던 그는 멕시코 현장의 수주금액이 높기에 우리나라보다 이익이 많이 남은 공사로 판단되어, 즉각 수주에 응해 낙찰을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업이 진척이 잘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작업자에게 단순히 용접일 A에서부터 B까지 하라고 하면 자신이 알아서 다하는데 멕시코 근로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라고 콧속 집어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고, 재료의 공급이 없거나 자세한 일의 내용 및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볼트의 너트가 맞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작업 감독자를 배치해 작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푸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이것은 근로자에 대한 유한 책임과 무한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유한책임자 라기 보다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진 무한 책임자로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무방비 상태의 근로자가 아닌 것인지.

며칠 전, 울산에 있는 한 외국회사 사장이 우리 사무소에 와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그는 “왜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근로자는 해체한 후 작업하고 그것을 사장의 책임이라고 노동부에서 부르는지 이해가 안간다” 는 것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방법 및 절차를 디자인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작업하는 절차, 새로운 방법이 생겼을 경우에는 건의와 전

문가의 심의를 거쳐 개선되어 가는 이 모든 과정에 안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주는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노는 근로자를 보고 어찌 생각할까? 아마도 무능하고 소극적이고 나태한 근로자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기계도 고치고 위험한 곳이라도 물불가지지 않고 뛰어 들어야만, 애사심 강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한번 주의를 돌아 볼 때 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업은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에 라면을 끓이는 방법도 그 절차가 라면봉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어린 아이들은 이를 보고 잘 따라 하는데 우리들은 어떠한가? 사고가 발생 한 경우를 보면 바빠서, 이정도야, 조심하면 되니까... 뭘 이런 것 까지? 대응하면 되, 생산이 중요하지, 뭐해 빨리해, 하루 이틀 일 해보냐? 등의 의식은 작업의 절차를 무시하는 안일한 습관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만 할 점이다.

만일 창고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어 불이 붙었다고 가정해보자. 휘발유가 창고 바닥에 뿌리진 것이 잘못일까? 불을 붙인 것이 잘못일까? 창고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지게 된 과정 즉 절차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일 불을 붙인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는 불안정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 주요 요인인 시설 면에서의 개선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휘발유가 창고에 뿌려지게 되었으며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의 근본 원인을 점검해 제거 한다면 두 번 다시 휘발유가 창고바닥에 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전제로, 인간 존중의 철학에 근거한 작업방법과 작업순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장인정신 이야말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과 씨앗의 역할을 하리라 본다.

안전이 무엇이관데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한기에
사람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를 기도하였고

일하다 다치는 이로 아픔이 없길
이 밤도 고되에 잠겨 생각하다 어느덧 아침이 밝았네

근로자는 다스려지는 것이 아닌건 만
근로자 위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아픔을 함께 할 영혼은 어디에

아! 아픔이여
약하디 약한 사람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집어가며 알려주어야 하건만
혼자 싸워 살아남는 자만의 영광인양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고

피로 얼룩지고 고름으로 찬 아픔을
당연한 그리고 거쳐야 하는 절차로
선창들이 처음 입사한 근로자를 내 팽개치면
근로자들은 길 잃은 아이처럼
위험한 현장을 맴돌다 처절하게 죽어가고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전이건만
무슨 모험담 과 무모한 행동을
훈장인양 자랑스럽게 떠드는 풍토 속에
근로자는 하나 둘 생명을 끊는다.

- <점검의 룰>이라는 글.

왜 점검을 하는지? 그동안은 기준도 철학도 없었지요. 그래서 연초부터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하였는데, 이제야 겨우 틀을 잡았네요. 지금은 살을 붙이는 중입니다. 점검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더군요.

첫째, 점검룰에 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 좌절하면 타협이 되지요.

둘째,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룰을 충분히 이행하고 필요성을 절감해야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겠죠. 이것을 못하면 상대방은 필요 없는 것으로 느끼죠.

셋째, 개선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대편 입장에서의 충분한 이행과 작업방법의 궤도를 살핀 후 근로자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절대로 안전을 불필요하다 없애지 말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개선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전은 공염불이 되겠지요.

넷째, 의지입니다.

반드시 뭔가는 해야 한다는 그리고 점검자는 그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점검 받는 자도 그것에 공감하는 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을 개선하고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전은 멈춥니다.

다섯째, 비전입니다.

점검은 스스로 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점검의 시간은 극히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곳을 이끌고 가는 분들이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점검자보다 몇 백배 힘들고 어렵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안전 점검 후 안전을 하지 아니하여, 유명무실한 안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만일 책임자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 앞에 하였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도 됩니다. 점검에서 지적이나 실적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점검의 최상의 목표가 아닐까요? 만일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때는 법의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하고, 강한 의지로 이끌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점검을 하면서 흔들릴 때 되새겨야 하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